

# 이복현 금감원장의 1년 성적표는 ‘A+’



**이 정 희 역**  
西村브리핑

리더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4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똑똑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똑부) 두 번째로 똑똑하고 게으른 지도자(똑게) 세 번째로 멍청하고 부지런한 지도자(멍부) 네 번째로 멍청하고 게으른 지도자(멍게)이다.

새삼스레 리더십을 거론하는 것은 다음 달 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때문이다. 지금까지 이 원장에 앞서서 14명의 원장이 금감원을 거쳐갔지만 이 원장외에는 ‘똑부’와 ‘똑게’ 두가지 리더 유형을 함께 갖춘 원장은 없었다. 지금까지 최고로 평가받는 1대 이현재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 5대 윤증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도 전형적인 ‘똑게’ 스타일이란 점에서 이 원장은 새로운 유형의 리더라 할 수 있다.

1년 전 이 원장은 금감원 설립 이래 최초로 검찰 출신으로 입성했다. 정치권과

금융권은 발각 뒤집어졌다. 그가 관료나 금융계, 학자 출신이 아닌 특수통 검사라는 점, 또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통하던 실세 인물이라서다. 이 원장이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검사로 줄곧 경제 금융 범죄를 담당해왔지만 금융 디테일에 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1년을 맞는 지금, 이 원장이 받아 든 성적표는 ‘A+’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평가다. 취임 후 주가 조작 혐의 대상인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 ‘팩트트랙’ 이첩, 불법 공매도 문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금융사기 및 내부통제, 은행 이상 외화송금, 레고랜드와 흥국생명의 회사채 사태, 자산 운용사 비정상관행거래, 전세사기 총력 대응 등 금융시장 주요 현안에 신속하고 빠른 판단력으로 시장을 빠르게 안정시켰다.

필요시 금융당국의 ‘빅스피커’ 역할도 자처했다. 지난해 4대 금융지주가 40조원의 이자이익을 올렸으며 눈치없이 성과급과 명퇴금 파티를 벌이자 ‘악탈적’이라는 강한 표현을 쓰면서 “은행이 상생을 외면한 채 이익 추구에만 몰두하면 국민과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고 금

융권에 쓴소리를 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의식해 라인펀드 판매와 관련한 금감원 중징계에 대해 불복 소송 움직임이 있자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단축됐던 은행의 영업시간과 관련, 금융노조가 정상화를 반대하자 강력 대응을 표명해 ‘백기’를 들게 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23일에도 “금감원장의 직을 걸고 주가조작 세력과 전쟁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시장에 직설적 메시지 전달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등 경제 금융 수장급 뿐 아니라 내부 직원, 금융권과의 꾸준한 소통도 방식이나 진정성면에서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비리와 부정, 불통으로 금감원과 시장을 무너뜨렸던 지난 정부의 민간 출신 원장들과 비교하면 이 원장의 지난 1년간 족적은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새삼 상기시키고 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초심’만 잃지 않는다면 성공한 인사로 금감원과 금융권에 각인될게 분명해 보인다.

/ljh@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5월 26일 (음 4월 7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외출할 때 옷차림에 신경 써라. 48년생 달콤한 속삭임이 있으니 굳은 의지가 필요. 60년생 욕심이 지나치면 일이 성사되기 어렵다. 72년생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 한다. 84년생 변화의 운이 있으니 환경을 바꾸어보자.
- 소** 37년생 가장 큰 미덕은 허를 구술할 줄 알아야 한다. 49년생 망설임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61년생 흘러가는 대로 버려둬라. 73년생 기분이 상해도 이해. 85년생 작은 일에 신경 쓰지 말고 크게 보고 행동.
- 호랑이** 38년생 망해 버린 나라의 옥새를 끌어안고 있어 본들. 50년생 머리만 민고 있다가는 일을 그르친다. 62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혼란스럽다. 74년생 주변이 수상하니 말조심. 86년생 천 리 길도 한걸음부터이니 우선 시작을.
- 토끼** 39년생 남의 눈에 티끌만 보지 말고 내 잘못도 생각. 51년생 걱정은 버리고 과감하게. 63년생 먼저 주면 다시 큰 것을 얻는다. 75년생 재실이 아프면 남의 살도 아프다. 87년생 기쁨과 근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마음먹기 나름.
- 염** 40년생 앞에 나서게 되나 다른 사람들의 질투를 받는다. 52년생 과욕불급이니 지나친 운동을 삼가라. 64년생 날씨 탓만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보라. 76년생 오후 하늘에서 꽃비가 내린다. 88년생 모난 돌이 정맞는 법이니 자중.
- 뱀** 41년생 노력한 보답이 주어지지 오후 보람이 있다. 53년생 초대받은 손님으로 환영을 받는다. 65년생 한발 물러서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다. 77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 89년생 여의주를 얻은 격이니 뜻한 바를 이룬다.
- 말** 42년생 공에 따라 상을 나누어주게 된다. 54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66년생 바람이 불어대니 방향이 시작된다. 78년생 바닷가로 여행을 떠나면 길하다. 90년생 친구과거를 끄집어내면 시비가 발생된다.
- 양** 43년생 자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처리. 55년생 인정은 변하기 쉬우니 그 래도 양보를 해 보라. 67년생 리더십의 본질은 설득력이다. 79년생 익숙해져서 게을러지지 않기를. 91년생 마른 눈에 물들어 오듯이 일이 풀린다.
- 원숭이** 44년생 새로운 인연으로 중요한 정보를 얻는다. 56년생 망설임이 때로는 좋은 결과를 준다. 68년생 꿀을 얻으려면 벌통을 먼저 손질해서 놓아야 한다. 80년생 영업은 매우 이익이다. 92년생 우물거에서 승승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 닭** 45년생 무심결에 한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57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당신의 격을 높여준다. 69년생 운이 상승하기 시작하니 무슨 일든 시작. 81년생 병도 약도 다 제 할 것. 93년생 독단적인 일 처리는 배우자의 원망을 듣는다.
- 개** 46년생 하늘이 푸르니 마을에서 희망이 보인다. 58년생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이 불편하다. 70년생 일시적인 감정이 상대의 오해를 산다. 82년생 뒷사람과의 불화가 의심되니 확 나서지 마라. 94년생 소신 있게 기획안을 제출해보라.
- 돼지** 47년생 넓은 마음으로 계획하여 재회를. 59년생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지 마라. 71년 자식 자랑에 입이 쉬지 않는다. 83년생 미래를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걸 두려워 마라. 95년생 주변에 배려를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하는 시기이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위기... 기업·정부 힘 합쳐야



**기 지 수 첩**  
양 성 운  
(산업부)

“미국 법무부가 정말 그랬어?” 최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안개 속을 헤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합병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논란은 확대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지난 2019년 금호그룹이 유동성 위기로 아시아나를 매각하기로 하고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코로나로 계약이 무산되면서 시작됐다.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이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아시아나 인수 계획이 없었던 대한항공은 한국 항공산업을 살리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 수년간 경영난에 시달렸던 아시아나는 산업은행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3조 5400억원에 이르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회생 불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1조원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아시아나에 지급했고 잔금 8000억원만 남은 상태다.

양사의 합병은 2021년 1월 14일 이후 총 14개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조원태 회장은 합병을 위해 국가별로 태스크포스를 꾸려 인력을 투입하는 등 전면에 나서 진두지휘했다. 지난 2년여간 기업결합 심사 통과를 위한 법률비용만 1000억원 이상 쏟아부었다. 이같은 노력으로 영국을 포함해 11개국은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문제는 현재 남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세 곳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이다. EU는 지난 17일

합병에 따른 시장 경쟁 제한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 측에 통보했다. 여기에 미국의 경우 법무부가 대한항공에 ‘아시아나급 경쟁자가 없으면 합병 승인이 어렵다’고 통보했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해당 내용에 대해 대한항공은 “통보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여전히 논란이다. 대한항공이 합병 승인을 받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보도는 기업 구성원들을 힘들게 할 뿐이다.

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해외 경쟁 당국의 방어적인 모습은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 물론 대한항공도 경쟁 당국이 납득할 수 있는 답안과 합병에 따른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때다.

/ysw@



# 김상회의 四季 개금불사

복덕이란 전생에 닦은 것을 금생에 받는 것인데 불상 개금불사에 마음을 내면 신심자량은 물론이요 비할 바 없는 복덕을 얻게 된다고 옛 조사들은 말한다. 그래서인가 필자가 잘 아는 분은 어느 사찰에서라도 개금불사를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무조건 달려가 동참을 한다. 보시한다는 자체가 재물의 다소에 상관없이 공덕이 되는 것이지만 특히 개금불사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복덕이 뒤따른다고 알려져 있기에 그러한 것이리라.

개금불사의 공덕을 나열해보면 우선은 금생에서의 벼슬인연이요, 둘째는 현재 부모님의 복덕과 수명이 증장하게 되며 셋째는 사업이나 원하는 바가 여의원만 구축되어 번창하므로 세간과 출세간 양쪽에서 다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한다. 불보살님 개금불사에 동참한 공덕은 참으로 불가사의하다고 강조되고 있다. 왜냐하면 불상에 개금을 하는 것은 불상을 조성하는 공덕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황금으로 부처님을 장엄하면 자신을 장엄한 것이 되고 황금 옷을 입혀드리면 자신의 몸에 입는 것과 같다는 것으로서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귀한 금으로 부처님 상호를 장엄하니 보는 이들로 하여금 공경 심과 신심을 일으킨다.

이 공덕으로 세세생생 상호가 단정하고 그 지위와 권세가 높아지며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개금 장엄을 함에 있어 부처님 상호의 부유마다도 공덕의 종류가 다르기도 설명한다. 즉 부처님 두상과 가슴과 등 손 발에 따라 나누어 설명하는데 다른 것은 다 차지하고서라도 평범한 사람이 출세를 하고자 하거나 학업성취나 시험합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개금불사에 선심을 낸다면 바라는 바가 속히 이뤄진다는 것이니 불자라면 어찌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생각이 높을수록**  
문제출제: 손호성

**문제풀이방법**  
4X3 스토쿠는 가로·세로·4X3박스에 1부터9 ABC의 문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부등호 스토쿠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9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정답**

8	2	9	5	2	8	1	6	7
1	8	7	6	9	8	9	2	2
2	9	6	1	2	7	8	9	8
8	1	2	7	6	2	9	8	9
9	2	8	8	9	2	6	7	1
7	6	9	8	1	9	2	8	8
9	8	1	2	7	6	2	8	9
2	9	8	2	8	9	7	1	6
6	7	2	9	8	1	8	9	2

2	3	6				4		
8								7
5				6			9	3
		4						
7							3	
			3			5		9
							6	
	2	9						8

고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argo9.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19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301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